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㉚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옮김)

(지난호에 이어서)

무릇 태공과 주공은 세간에서 성자(聖者)라 말하는데, 위업을 세우고 법률을 드리움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나 끝에 이르러 그 폐단은 오히려 그와 같았다.

하물며 땅은 그 자리해 있는 곳이 틀리고, 사람은 각기 그 족속이 다르며, 서로 대치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자웅을 다툼에 그 끝을 모르는데, 펼쳐 놓은 옛 법을 어리석게 움켜쥐고 그것에 얽매여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세상에 나아가 이기기를 바라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자기의 장점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워 겸비하는 자는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해 지며,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폐단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어찌 그리됨을 아는가?

옛날에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이 유여(由余)에게 묻기를 [중국은 시서(詩書)와 법도(法度)로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오히려 때때로 어지러운데, 지금의 융이(戎夷)는 이러한 것도 없이 어떻게 나라가 다스려 지는가?] 하니, 유여가 웃으며 이르기를 [이는 중국에 있어서 어지러운 이유가 융이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까닭입니다. 윗사람은 순박한 덕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은 충성된 믿음을 품고 윗사람을 섬기니, 한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까닭이므로, 다스리는 이유를 모르는 이것이 진실된 성인의 다스림입니다] 하였다.

무릇 순박하고 후덕함을 높이고, 간단하고 소박함을 숭상하는 것은 융이가 강자가 되는 이유이다. 이를 이용하고 중국의 복잡하고 번거로움을 극복한다면 곧 승리할 것이요, 이를 이용하면서 다시 중국의 복잡하고 번거로움을 배운다면 곧 수고스러울 것이며, 만약 이를 버리고 오로지 중국의 복잡하고 번거로움만 배운다면 곧 망할 것이다. 이는 진실로 그러한 형세일 것이다.

何以知其然耶? 昔者匈奴, 人衆不能當漢之一郡而能不失其强者, 用其所長以撓其短也. 夫匈奴之地, 鉅野平沙, 風氣凄冷, 五穀不熟, 草荣平蕪. 民皆家氈帳, 跨鞍馬, 畜牧逐水草而遷徙之. 乘中國之有, 則一時蜂聚蟻合, 彎弓橫, 背寒向溫, 剽(掠)[ ]邊塞. 如勢頭不好, 則撤帳拔鍋, 携妻率子, 縱馬任適, 曾不顧戀. 此, 其亘百世而爲中國之大也. 及單于慕華(靡)[ ]美而妻漢妃, 胡俗而嗜漢物, 舍 之堅善而得漢繒絮以馳草棘中, 舍重酪之便美而得漢食物, 棄其簡樸而襲漢之繁縟. 夫! 學于人者, 難得出藍之譽, 汲于流者, 只酌其餘波. 天下之舍己學人者, 不爲邯鄲學步者鮮矣, 匈奴其無敗亡乎? 雖然, 豈但匈奴而已哉! 昔者拓拔氏, 以胡 之種, 入據幽燕, 承 秦之後而稱霸於中原. 太武帝, 始制叛逆 殺人 姦盜之法, 號令明白, 政事(簡淸)[淸簡]. 於是南擊宋, 北逐柔然, 西定口厭月氏 波斯諸國, 威名(振)[震]乎當世. 晉氏.五胡之亂, 立國于中原者十六, 南北朝列國之興替不少, 而曾無若後魏之富强矣. 及于孝文帝之出而, 乃發平城, 都洛陽, 改姓易服, 禁北俗之語, 立明堂, 設 雍, 定樂章而 華靡, 立堯 舜 禹 周公 孔子之祠, 而其國卒至敗滅. 夫此數事者, 豈本亡國之事, 而終不可學者耶! 余未嘗以爲然, 此特已舍其長而無存, 求學于人而未就, 只得其末流之病弊(故耳)[矣]. 於是舊俗已泯而害毒方新, 夫奚[暇]救其敗沒渙散哉!

어찌 그리됨을 아는가? 옛날에 흉노가 사람의 숫자로는 한(漢)나라 한 개의 군(郡)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능히 그 강함을 잃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하고 그 단점을 꺾은 때문이다. 무릇 흉노의 땅은 거대한 들판과 평탄한 사막으로서, 바람의 기운은 싸늘하여 오곡은 익지 않고 풀과 잡초만이 너른 들에 무성하다.

백성들은 모두 털 담요로 장막을 쳐서 집을 삼고, 말안장에 걸터앉아 말을 몰아 목축을 하며 물과 풀을 쫓아 옮겨 다녔다.

그러다가 중국 땅에 틈이 생기면 곧 일시에 벌떼와 개미떼 같이 모여서 활과 창을 비껴 들고는 추운 곳을 등지고 따뜻한 곳을 향하여 변방의 요새들을 사납게 공략하였으며, 형세가 여의치 않으면 곧 장막과 솥을 걷어 뽑고 처자를 거느리고 말을 몰아 마음대로 돌아가 버린 뒤 다시 돌아보는 미련은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의 커다란 해독이 되었다.

선우(單于)에 이르러 중국의 아름다움만을 그리워하여 한나라의 비(妃)를 아내로 맞고 고유한 풍속을 변질시켜 한나라의 물건만을 즐기게 되니, 털옷의 견고하고 좋은 것은 버리고 한나라의 비단솜을 얻어 입고 초원의 가시나무 사이로 질주하였으며, 진한 젖의 편리하고 맛있는 것은 버리고 한나라의 음식물을 얻어먹었으며, 그들의 간략하고 소박한 것은 버리고 한나라의 복잡하고 번거러움만을 물려받게 되었다.

무릇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자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명예를 얻기 어렵고, 흐르는 물을 긷는 자는 그 자투리 물결만을 퍼내게 되듯이,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배우면서 한단(邯鄲)의 걸음걸이가 되지 않는 것은 드물다 하였으니, 흉노의 패망이 어찌 없을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어찌 단지 흉노뿐이겠는가! 옛날 탁발씨(拓拔氏)는 호갈(胡)의 종족으로 유연(幽燕)에 들어와 자리하며 부건(符健)이 세웠던 전진(前秦)의 뒤를 이어 중원의 패자로 일컬어 졌다.

태무제 때 비로소 반역·살인·간음·도적에 관한 법을 제정하니, 호령이 명백하고 정사가 맑고 간략하였다.

이에 남쪽으로 송(宋)을 치고 북쪽으로 유연(柔然)을 쫓아내고 서쪽으로 압돌과 월씨 및 파사 등 뭇 나라들을 정벌하여 위세와 명성을 당대에 떨쳤으니, 진(晋)나라 오호(五胡)의 난리 때 중원에 나라를 세운 자가 열 여섯이었으며, 남북조 때 열국(列國)의 흥망성쇠도 적지 않았으나 후위(後魏)와 같은 부강함은 없었다.

그러나 효문제가 즉위함에 이르러 이내 평성(平城)을 떠나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성씨를 고치고 복식을 바꾸며, 북쪽 풍속의 언어를 금지시키면서 명당(明堂)을 세우고 벽옹(雍)을 건설하였으며, 악장(樂章)을 정하여 화려하게 꾸미고는 요·순·우·주공·공자의 사당을 세우니, 그 나라는 마침내 패망하게 되었다.

무릇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어찌 나라를 패망시키는 근본이 되겠는가 마는, 아무래도 배울 만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태평성대를 이룩한 북위의 풍태후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우리는 때로 출신을 꽤 따진다. 혼인을 할 때도 사람을 채용할 때도 혹은 벗을 사귀거나 거래를 할 때에도 출신을 따지는 일이 간혹 있다. 출신을 안다는 것은 그가 성장한 환경을 보려 함일 것이다.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서 성격과 인품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출신을 보려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고 반드시 그 인품이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쁘면 발분(發奮)하여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에 개천에서 용(龍)난다는 말이 있기까지 한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 역사에서 남북조 시대에 북조(北朝)를 통일한 북위(北魏)가 있다. 물론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이라고 일컫던 선비족(鮮卑族)으로 중원지방으로 내려와 사분오열된 북조를 통일하였고, 이 세력은 후에 수(隋)·당(唐)으로 이어져서 중원지역을 지배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야만에서 이처럼 문화민족이 되었을까?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양반이라도 자만하지 말고, 가정환경이 나쁘다고 시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냥 이룩되었겠는가? 그런데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여인이었다. 문제의 모후인 풍(馮)태후였다. 그녀는 비록 여인이지만 태평성대를 이루려는 조치와 노력을 했다. 북위가 건국하고 100년쯤 지난 시점은 이미 북조를 통일을 이룩한 지 50년이 되는 시기였고 이때에 정권을 쥔 사람은 황제인 문제(文帝)의 어머니인 풍태후였다. 그녀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었다가 황후에 올랐고, 결국 아들 문제까지 성공한 황제로 만든 여인이다. 원래의 신분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여인이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관리들이 뇌물 받는 것이 없어져야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관리들에게 봉급을 안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먹고 살 봉급을 주겠다. 그러나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라.' 옛날에는 포(布) 14필을 받거나, 부정하게 뇌물로 24필을 받으면 그 죄는 사형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부정하게 뇌물로 1필이라도 받거나 법을 어기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정말로 엄격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려웠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걸려 든 사람은 황제의 외척인 이홍지(李洪之)였다. 그는 외척이기에 존귀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정치를 제대로 못하더니 결국 뇌물을 받았다가 첫 번째로 걸렸다. 물론 용서되지 않았고 봐 준 것이 자살하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걸려 든 사람이 40여 명이었다. 전에 봉급을 안 받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관행이 이제는 중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봉록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며 몸 둘 바를 몰랐고 뇌물 받는 일은 거의 끊어졌다.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그럴 듯하게 묘한 말을 가지고 이 개혁을 되돌리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회남왕(淮南王) 탁발타(拓跋佗)가 예전처럼 관리에게 봉록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가 재정을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는 것이 봉록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풍태후에게 개혁을 추진하게 한 고려가 말하였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절박하게 하면 자애로운 어머니도 그 자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리에게 봉록을 주고 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덕택에 북위의 관료는 깨끗해 졌고, 그 덕택에 오히려 재정적 여유가 생겨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른바 환(鰥)·과(寡)·고(孤)·독(獨)·빈(貧)·융(癰, 질병)에게 재물을 나누어주었다. 복지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아직도 공직자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상위에 있다는 우리나라이다. 민간의 부패는 공직자의 부패에서 싹튼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태평성대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1500년 전에 야만국가라는 북위에서 한 것을 21세기 문명국에서도 못하다니! 문화민족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5월20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희택(부총재)	50만원
△권기덕(부총재)	100만원
△권재주(부총재)	100만원
△권혁기(부총재)	100만원
소 계	35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오극(안동 복야공파)	20만원
△권영환(음성 추밀공파)	20만원
△권영건(안동 부호장공파)	20만원
△권경섭(안동 복야공파)	20만원
△권혁길(강릉 복야공파)	20만원
△권오현(음성 대종원)	20만원
소 계	120만원

▣ 대의원회비

△권찬섭(안동 부정공파)	10만원
△권용한(대구 좌윤공파)	10만원
△권순덕(안동 부정공파)	10만원
△권호량(예천 대종원)	10만원
△권영복(서울 대종원)	10만원
△권오선(서울 부정공파)	10만원
△권태경(강릉 복야공파)	10만원
△권오록(강릉 복야공파)	10만원
△권오열(강릉 추밀공파)	10만원
△부산청년회	10만원
소 계	100만원
합 계	**570만원**

槐雲 칼럼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를 보고

▣ 槐雲 權 海 兆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으로 가정(家庭)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성본제도(姓本制度)를 발전시켜 만세일계(萬世一系)의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본 종중(宗中)이 집성하여 혈통의 소사(小史)로 자손대대로 세전(世傳)하고 있는 족보(族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2008년 호주제에 이어 올해 간통죄까지 폐지되어 가족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호주(戶主)중심으로 가(家)단위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종전까지는 아버지를 따름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혼인 신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성(母姓)으로 하기로 합의하면 모성을 따를 수 있고 어머니가 재혼, 삼혼하여 전부(前夫)의 자녀를 데리고 갈 경우 새 의부(義父)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취지는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되던 본적개념이 바뀌고, 가족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신고지 직접처리 간편성 등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호주 주도의 가도(家道) 소멸, 친족윤리 붕괴, 직계존비속 가족부 제척(除斥), 재혼자녀 혈통 성본 불일치, 주민등록과 호적상 기록 차이 등의 단점도 많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재혼가정의 민원을 반영하여 초중고교생들의 생활기록부(학적부)에 재혼한 가정의 학생이 실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의 인적사항은 무조건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르도록 하여 오래전에 이혼한 친부, 친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친권자인 부모중의 한명의 동의를 받아 부(父) 또는 모(母)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이름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새 가정과 학생의 고통을 덜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전체 혼인건수 32만 2807건 가운데 재혼이 20.8%(6만 7120건)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성에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명목으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1990년부터 다섯 번째다. 1990년과 93년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합헌을 내렸고, 2003년 8명, 208년은 4명이합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7명이 위헌을 주장했다. 2008년 이후 간통죄 기소자가 5,466명이며 그 가운데 2,973명이 유죄 확정되고 600여명이재판중에 있다한다. 이들은 공소취하와 재심청구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우리사회의 성의식의 변화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불륜조장, 가정 파탄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사생활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내세워 일부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계 선진국들도 폐지 추세에 있다. 간통죄는 애정과 신의가 깨진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부간에 갖추어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 형벌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범죄는 아니어서 간통죄가 더 이상 가정과 여성의 수호신의 방패로 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으며, 건강한 사회에서 높은 윤리의식만이 가족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

간통죄의 폐지로 성풍조 조장 등의 부정행위가 우려되지만 가족관계가 달라질 것은 없다. 가족에 대한 가치의식은 간통죄 존치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가족은 국가조직의 기본단위로 인식되어왔고, 간통죄는 가족을 보호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부정행위의 용인 의미는 아니며 간통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 구체적인 민사책임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가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제도화 되었으니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잘 따를 도리 밖에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족보는 보완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成化譜)를 간행한 안동권문이야 말로 혈통을 지키고 조상을 존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성실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야 한다.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⑩

▣ 김 영 헌 (광주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왜군이 금산에 쳐들어오자 금산군수 권종權悰 : 권율의 4촌형은 심한 학질에 걸렸음에도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아 제월찰방 이극경李克絅, 역졸들과 함께 제원濟原에서 강 하나를 두고 접전을 벌였으나 아군은 모두 순절하였고『권종순절유허비』 곽영과 김종례는 고산으로 퇴각함으로써 금산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이유의는 남원판관 노종령盧從齡 등을 거느리고 송현松峴 : 금산과 용담 경계으로 옮겨 왜군이 남으로 내려올 것에 대비했다. 금산과 무주에 머물고 있던 왜군이 약탈과 살육을 일삼자 이 지역 군민들은 공포심에 휩싸여 있었다.『난중잡록』

전라도순찰사 이광은 전주를 사수하기 위해 전주사람 이정란李廷鸞을 수성장으로 임명하여 이웃 읍에서 군사를 모아 대비케 하였고, 남원에 전령을 보내 성을 지키게 했다. 이에 정염丁焰을 남원 향병장으로 추대하여 부사 윤안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원을 수성토록 했다.

한편 김천일이 이끄는 3백여 명의 의병은 6월 3일 나주를 출발하여 6월 15일 전주에서 전라병사 최원 군사 2만여 명과 함께 직산과 진위를 거쳐 6월 23일 수원 독성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또 고경명이 이끄는 호남 연합의병 6천여 명은 6월 11일 담양을 출발, 전주에 도착하여 6월 21일까지 전열을 정비한 뒤 북상을 준비 중이었다.

금산과 무주에서 전주로 가려면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진안에서 웅치熊峙 : 곰재, 熊峴을 넘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금산-진산을 거쳐 이치梨峙 : 배재, 梨峴를 넘는 두 길이다.

웅치와 이치는 전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여기서 전라도 수호를 위해 혈전이 펼쳐졌던 웅치와 이치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산주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따. 백두대간은 백두산이 시작점이고 지리산이 끝점이다. 백두대간은 전라도(장수)와 경상도(함양)의 경계 영취봉(1,076m)에서 서북쪽으로 금남호남정맥을 이룬다. 금남호남정맥은 영취봉에서 시작해 장안산(1,237m)을 지나 섬진강 발원지인 팔공산(1,151m)을 거쳐 덕태산(1,132m)-성수산(1,059m)-마이산(68m)-부귀산(806m)-조약봉까지이다. 조약봉에서 남쪽으로 호남정맥으로 이루고, 북쪽으로 금남정맥을 이룬다. '웅치'는 호남정맥 조약봉과 만덕산(762m, 완주군 상관면과 소양면, 임실군 성수면 경계) 중간지점인 진안군과 완주군 사이의 고개를 말한다. 금남정맥은 조약봉-연석산(925m)-왕사봉(718m)에서 두 줄기로 나눠지는데 본줄기는 군산 장계산(110m)까지 이르고, 한 줄기는 대둔산(878m)-계룡산(845m)-부여 부소산까지 이른다. '이치'는 금남기맥으로 대둔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금산군과 완주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제 조선 8도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인 공격에 벗어나 있던 전라도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군이 무주, 금산에 이어 용담과 진안을 점령함으로써 전주부성에 대한 전면 공격이 임박한 것이다.

이당시 권율은 광주목사 겸 전라도 도절제사로서 순찰사 이광과 상호 연락을 취하며 남원에 있다가 장수와 임실 사이로 군대를 이동해 왜적의 남하와 서쪽 진출을 방어하고 있었다. 『선조실록』(1596. 3. 4)

앞으로 전개될 여러 전투 중 웅치전투는 이광과 함께 작전을 지휘하였고, 이치전투는 주장으로서 직접 참전했다.

웅치전 전투상황과 참전인물

아군의 방어 태세

금산과 무주를 점령하고 있던 왜군은 전주와 남원을 침략할 계획으로 용담과 진안을 향해 계속 남하하고 있었다. 6월 25일, 진안 아래인 운암(임실군 운암면 장곡리)까지 진격하여 남원사람 양대박이 이끄는 1천 5백여 명의 의병과 전투를 벌였으니 이 무렵엔 전라도 동북지역인 금산, 무주, 용담, 진안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왜군은 먼저 진안에서 웅치를 넘어 전주부성을 점령하고, 또 남원부를 침략하여 전라도 전체를 장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원부성은 양대박 의병장에게 저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따라 왜군은 웅치를 넘어 전주부성을 점령하려고 전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이를 간파한 전라도순찰사 이광과 광주목사 겸 도절제사 권율은 웅치 방어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